시즌1

2차

진단 평가 지문 분석

이감

[2022학년도 시즌1 진단평가 제2차 지문 분석]

[1~4] 고전소설 : 김소행, 「삼한습유」

*** 수록 지문 평가**

평민 여성인 향랑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개가(改嫁)를 거부하다 자결한 일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가 죽으며 불렀다는 <산유화> 노래는 지금도 남아 있다. 향랑의 이야기를 다룬 많은 한시나 전(傳)들이 향랑의 '열절(烈節) 의식'을 찬양하거나 강조하는 데 힘쓴 반면, 「삼한습유」는 향랑이 개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문제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열녀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묘한 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향랑이 천상계와 지상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적강 모티프'와 '몽유록 구조'가 활용된 것이다. 또한 인간 세상에 환생해 효렴과 재혼한 향랑이 신라 중심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남편인 효렴을 도와 혁혁한 공을 세우며 '숨은 조력자로서의 여성 영웅'의 면모를 보여 준 작품이라 하겠다.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을 받던 신라는 의열 부인의 지혜에 힘입어 당나라와 연합한다.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지만, 왕성을 눈앞에 두고 적룡의 방해로 강을 건너지 못한다.

 # 토막1 : 연합군이 '향랑'의 조언을 따라 '적룡'을 죽이다

소 장군(=나당 연합군을 이끌었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을 말함)이 미적미적하며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거북점(=거북의 등딱지를 불에 태워서 그 갈라지는 틈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점)을 쳐서 한 괘를 얻었다. 그 괘에는 '실수를 바로잡으라. 용이 들에서 싸우도다. 이로움은 부인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데, 그러면 말[馬]을 잃으리라.'라고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괘의 내용을 풀 수가 없었다. 장군이 "군중(軍中)에 어찌 부인이 있겠는가?" 하니, 김유신이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신라의 아찬(=신라의 벼슬 등급 가운데 여섯째 등급) 효렴의 아내인 의열 부인(義烈夫人)[→ 아찬의 부인인 '향랑'을 말한다. 향랑의 절개를 치하하여 임금이 '의열'이란 호칭을 내린 거다.]은 신에 가깝습니다. 점괘에서 말한 것이 이 부인이 아닐까 합니다."

⇒ '향랑'은 사실 신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죽은 뒤 천상계에 머물다 인간으로 환생하고, 고사(故事)는 물론 천지 사물과 천문, 귀신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효렴'을 깨우친다. 백제를 치는 데 당나라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아찬'에게 일러 준 것도 '향랑'이다.

장군이 이 말을 듣고 아찬 효렴을 불러서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내주며 말했다.

"내가 이 말을 탄 지 오 년이 되었는데, 가지 않은 곳이 없었소. 하루에 천 리를 가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소[→ 이만큼 아끼는 말을 내어 준다는 것은 '의열 부인'을 만나는 일에 '소 장군'이 진정을 다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사태의 시급함을 반영하는 행동이라 하겠다.]. 오늘 그대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말을 한번 타고 가서 부인에게 물어보시오."

아찬이 말을 달리니,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였다. 부인이 "어찌 이리 급히 오십니까?" 하고 맞이하면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아찬이 사정을 모두 말하니 부인이 말하였다.

"백제는 금마산(金馬山)에서 나라를 열었는데, 금마산의 신은 주사씨(朱蛇氏)[→ '붉은 뱀'이란 뜻일 텐데, '적룡'의 전신이겠다.]로 옛날 동명왕 주씨(朱氏)[→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후예입니다. 옛날 금와씨(金蛙氏)와 싸우다 서로 죽이지 못하고 뱀이 되어 백성들에게 신성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사씨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금와씨는 한산으로 옮겨 가서 마침내 한산의 신이 되었고, 주사씨는 도를 닦은 지 천 년 만에 적룡이 되어 구중(九重)의 못에 사니 턱 아래 여의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 신이한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당에 모신 지 이제 육백여 년이 되었는데, 나라에 큰 난리가 있으면 여의주의 보답이 있습니다.[→ '적룡'은 백제의 수호신인 거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나 백제는 혼란함이 아주 심합니다. 임금이 십 년 동안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예순두 번이고, 변방에 행궁(行宮)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 새로 고란사(皐蘭寺)[→ 부여 부소산에 있는, 백제 말기에 창건한 절로 그 앞에 백마강이 흐른다.]를 짓고 반월성(半月城)[→ 부여에 있는, 반달 모양의 성]을 증축하고, 신에게 잘 보이려고 무당에게 예를 올리게 하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여 모든 이에게 이익을 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스스로 의자왕(義慈王)[→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뜻이다.]이라 칭하고는 있으나,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거의 하늘이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의자왕으로부터 천명이 떠났다는 뜻이니, 신라로서는 백제를 칠 만한 명분이 된다.]. 적룡 한 마리가 천명(天命)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 '적룡'이 아무리 애써도 하늘마저 버린 백제를 구해 낼 수 없다는 거다. '적룡'이라 해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겠다.

그러더니 이어 말하기를,

"용은 겉모습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누런 것은 순수하여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많기로는 적룡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식욕과 색욕이 더욱 심한 것은 그 성품이 워낙 그렇기 때문입니다. 용이 즐겨 먹는 것은 제비인데, 적룡이 좋아하는 것은 백마입니다. 이 사정을 이용해서 유리한 데로 이끌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백마를 미끼로 써서 '적룡'을 잡을 수 있다는 거다.]."

⇒ '적룡'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규정하는 거다. '적룡'이 실제 그런 존재인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을 부정적인 존재로 몰아붙임으로써 아군의 공격에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겠다.

하고 임 공자(任公子, 소를 미끼로 큰 물고기를 낚았다는 중국 전설상의 인물)의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찬이 자지도 않고 떠나,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 보고하였다.[→ 공(公)을 위해 촌각을 다투었다는 거다.] 장군은 매우 기이하게 여겼지만, 곧 말을 잃게 되리라는 점괘의 뜻을 깨달았다. 이에 큰 갈고리와 검은 비단에 백마를 미끼로 달아서 큰 바위 위에 쭈그리고 앉게 하였다가 강물로 던져 넣었다. 적룡이 그것을 삼키고는 큰 갈고리를 이끌고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놀라 날뛰며 수염을 부르르 떨치니 흰 파도가 산과 같이 솟아 강물이 뒤흔들리고, 소리는 귀신이 부르짖는 것 같으며, 눈부신 빛은 수백 리까지 번쩍거렸다. 삼군(三軍, 좌군과 우군, 중군을 포함한 군 전체)이 밧줄을 잡고 따라가는데 상하로 수십 번 오르내려서야 강 언덕에 끌어냈다.[→ 나당 연합군과 사투를 벌이는 '적룡'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대단히 박진감 넘치게 서술되고 있다.] 눈은 일월과 같이 빛나고, 발은 뱀과 무지개가 얽혀 있는 것 같고, 철 같은 수염은 위로 뻗쳐 있고, 신이한 비늘은 거꾸로 서고, 노기는 허공으로 치솟으니 맹렬하기가 휘몰아치는 불길과도 같았다.[→ '적룡'의 신이하고 위엄 넘치는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뽕나무 뿌리에 묶어서 급히 때려죽이고, 통째로 구워서 삼군이 배불리 먹었는데, 사람마다 실컷 먹지 않은 이가 없었다. 후에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일컬어 조룡대(釣龍臺)[→ 백제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의 바위 이름. '용을 낚은 대'라는 뜻이겠다.]라 하고, 강을 백마강(白馬江, 백제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의 강 이름)이라 하였다.

[참고] 나중에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큰 병을 앓게 된다. '적룡'의 몸에 독이 있었던 거다. 아찬은 다시 '향랑'에게 달려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해독 방법을 듣고 돌아와 이들을 구한다. 용의 고기를 먹고 중독된 사람은 모두 당나라 군인들이었다. 신라군은 용을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 토막2 : '의자왕'이 '적룡'의 죽음을 부인하다

적룡이 잡혀 죽고 나니, 백제의 성(城)안 백성들은 다시는 의지해 볼 데가 없어졌으므로 모두 곡을 하였다[→ 신라가 쳐들어오자 왕성(王城) 백성들은 모두 강가에서 '적룡'에게 제사를 지내며 구해 달라고 빌었고, 그에 부응하여 '적룡'이 나당 연합군의 배를 침몰시키며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 왔던 거다.]. 적룡을 낚아 올린 일을 성문 교위가 급히 보고하니, 신하들이 모두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자고 하였는데, 왕은 듣기 싫어하며,

"용을 낚을 수 있는가? 보고가 잘못된 것이다."

하더니, 자신이 총애하는 환관 대여섯 명을 시켜 다시 가서 알아보게 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고하기를,

"바람과 파도가 예전과 같으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왕이 싫어할까 봐 거짓 보고를 하는 거다.]

하니, 왕이 좋아하면서 이어 명하기를,

"다시 용을 낚은 일에 대해 말하는 자는 죽여 버릴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각자 돌아가서 천장만 바라보며 탄식할 뿐 감히 국가의 안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 왕은 그동안 '적룡'만 믿고서 향락만 좇고 있었으니,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심리일 테다. '천장만 바라보며 탄식할 뿐'인 '신하들'의 모습은 백제의 암울한 미래가, 곧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장면이다.

*** 참고 자료**

 # 작품 전체 줄거리

신라의 한 양가에 태어난 향랑은 장성한 후 재주 있고 가난한 효렴에게 시집가려 하나,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못난 남편에게 시집가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난다. 친정으로 돌아와 부모를 잃고 다시 외숙모의 권유로 마지못해 재혼을 약속하지만, 그녀는 혼인날 <산유화>를 지어 동녀들에게 전승하게 하고는 연못에 투신한다. 한편, 향랑의 죽은 영혼은 처음 사랑하던 효렴을 찾아가 전세의 인연을 말하고 현세에서 다시 부부가 되기를 맹세한다. 향랑은 그 뒤 천상의 후토 부인을 찾아가 상제에게 청하여 자신을 환생시켜 주기를 간청하자, 향랑의 환생 재가에 대한 천상 회의가 열린다. 상제는 공자의 요청에 따라 환생 재가를 허락한다. 뜻밖에 마군(魔軍)이 혼사를 방해하지만 천병(天兵)이 마군을 격퇴시킨다. 김유신이 다시 향랑의 혼사를 맡아 준비하고 있을 무렵, 또다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침범하지만 이를 격퇴시킨다. 마침내 후토 부인과 김유신에 의해 향랑과 효렴의 결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뒤 백제와 고구려가 다시 침략해 왔으나 그때마다 향랑이 신비한 계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드디어 삼국 통일의 위업을 완수한다. 만년에 향랑과 효렴 부부는 가야산에 들어가 해로하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한문 장편 소설로, 조선 숙종 때 이야기인 '향랑 고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 창작하였다. '향랑 고사'는 경상도 선산에 살던 향랑이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후 개가를 강요받자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삶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다. 작가는 향랑 고사의 결말을 변용하여 향랑이 환생해 효렴과 인연을 맺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삼국 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흥미를 배가시켰다. 또한 김유신, 소정방 등 실존 인물들을 이야기에 제시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핵심 정리

1) 갈래 : 한문 장편 소설
2) 성격 : 전기적
3) 배경 사상 : 유, 불(윤회), 선
4) 특징
   - '향랑 고사'를 소재로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야기가 재구성되었다.
   - 실존 인물과 실제 역사적 사건을 가미하여 흥미성과 현실감을 높였다.
   - 여성인 '향랑'의 삶에 영웅 일대기적 요소가 제시되었다.
5) 주제 :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5] 사회 :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부정 경쟁 방지법

*** 지문 평가**

다양한 개념들을 정신없이 던지기보다는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는 핵심 화제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지문이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니,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떠올리며 읽어 보기 바란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부정 경쟁 방지법
영업 비밀, 부정 경쟁 방지법, 특허권, 취득, 형사 처분, 사용, 공개, 부작위

*** 지문 분석**

 # 문단1 : 화제 제시

1) 제품의 제조 공정이나 제조 방법 등과 같은 기술 정보와 고객 정보, 마케팅 전략 등과 같은 경영 정보 중 기업이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정보인 **'영업 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원천 중 하나이다.

⇒ 영업 비밀은 말 그대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영업을 위한 비밀이다. 예컨대 코카콜라의 제조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영업 비밀이다.

2)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정 기업의 영업 비밀이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안은 **부정 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힘들게 개발한 양념 치킨 제조법을 다른 업체에서 몰래 베낀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다른 업체에서 몰래 빼 간다면? 영업 비밀이 유출된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바로 지문의 핵심 화제인 '부정 경쟁 방지법'이다.

 # 문단2 : 부정 경쟁 방지법의 보호 대상

1)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영업 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기업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여야 한다. '기밀 정보', '취급 주의'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이에 접근하는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 활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맥락 짚기] 지금부터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들이 하나씩 제시될 게다. 법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개념의 성립 요건들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 정리하면서 따라와 보자.

⇒ 어떤 정보가 비밀이라면 그걸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누가 정보를 빼 갔다며 하소연해 봤자 그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게다.

2) 또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여야 한다. 이는 비밀로 관리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실패한 실험 데이터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동일한 실패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영업 비밀에 속할 수 있다. 다만 유해 물질을 방류하는 방법 등은 정당한 영업 활동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 유용성이 부정된다.

⇒ '사장님 머리는 가발이다.'라는 정보는 개인적인 비밀은 될 수 있으나,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영업 비밀이 아니다. 또한 다양한 실패 사례들도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게 한다는 점에서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다. 다만 떡볶이에 유해한 색소를 쓴다거나 하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활동에 속하므로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정보여야 한다.

⇒ 외부에 알려져 있는 정보라면 애초에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영업 비밀의 인정 조건	
조건 1	기업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취급해야 함
조건 2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함
조건 3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

4)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영업 비밀일지라도 부정 경쟁 방지법이 정보[→ 영업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 비밀은 특허권처럼 법적 절차를 거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 일종의 보유 자산 정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특허권과의 대조 지점을 파악하자. 영업 비밀은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보유 자산에 가깝게 취급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법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다. 단 특허권처럼 별도의 법적 절차를 요하지는 않나 보다.

5) 부정 경쟁 방지법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 부정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즉 부정 경쟁 방지법의 목적은 영업 비밀이라는 정보 자체를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맥락 짚기]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확히 어떤 행위들이 '부정'한지 살펴봐야겠다.

 # 문단3 : 영업 비밀의 불법적 취득

1) 부정 경쟁 방지법은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다. 부정한 수단에는 몰래 훔치는 행위인 절취, / 남을 속여서 얻는 행위인 기망, / 그리고 협박 등이 있다.

⇒ 훔치거나 속이거나 협박하는 짓은 모두 부정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면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해 형사 처분을 받는다.

2) 이때 취득한 정보가 반드시 문서, 필름, 도면, 파일 등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영업 비밀 자체를 보거나 들은 후 기억하는 행위 역시 영업 비밀 취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영업 비밀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전달될 수 있는 시대에는 더더욱 영업 비밀의 취득 형태를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3) 그러나 영업 비밀을 고의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업 간의 제휴나 협상의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알게 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 어디까지나 '고의'로 영업 비밀을 취득했을 때만 문제가 된다. 과실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문단4 : 영업 비밀의 불법적 사용

1) 부정 경쟁 방지법은 어떠한 경로든[→ 부정한 취득이든 정당한 취득이든] 영업 비밀을 취득한 이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 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제3자에게 특정 기업의 영업 비밀을 얻어 사용하거나,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영업 비밀의 취득에서만 불법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업 비밀이라 해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에는 부정하게 이득을 보려는 것과 부정하게 손해를 끼치려는 게 모두 포함된다.

[맥락 짚기] 이때 문단3-3)과 같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정당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이때 영업 비밀의 사용에는 해당 정보의 본래 목적에 따라 상품의 제조나 판매 등에 활용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 영업 비밀]를 토대로 새로운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나아가 영업 비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개량하여 사용하였더라도 개량 전후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면 영업 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 여기서 나열한 사례들은 모두 다른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보려는 시도들이다. 쉽게 말해 코카콜라의 제조법을 훔쳤다면, 그걸로 똑같은 짝퉁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더 좋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같은 개량형 짝퉁을 만드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게다.

3) 사용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실제로 이익을 남겼는지의 여부는 형사 처분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영업 비밀을 훔쳐 열심히 짝퉁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설령 부정한 이익을 전혀 얻지 못했더라도 원래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었다는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문단5 : 영업 비밀의 불법적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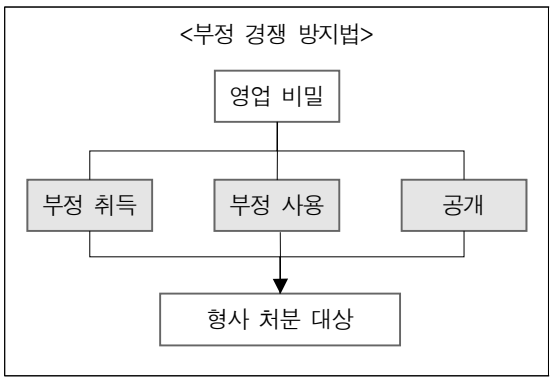
1) 부정 경쟁 방지법은 취득한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영업 비밀의 공개란 해당 정보를 한 명 이상의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구두나 서면뿐 아니라 도면이나 모형의 전시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 취득한 영업 비밀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공개하면 비밀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래의 기업은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비밀의 공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2) 또한 영업 비밀의 공개는 적극적인 공개 행위는 물론, 제3의 누군가가 영업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인 **부작위**도 포함된다.

⇒ 이건 주로 기업의 정보 관리자에게 해당하는 경우다. 누군가 영업 비밀을 훔치려는 걸 눈치챘다면 이를 막을 의무가 있다는 거다.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영업 비밀을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부정 경쟁 방지법>



[참고]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작위는 어떤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적극적인 행위 정도를 뜻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6~21] 과학-예술(주제 통합형)
: 미적 경험의 신경 생리학적 설명

*** 지문 평가**

흥미롭다. 지문 내적으로는 시각 정보가 수용, 전달되는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들이 산출되는지에 집중해야겠다. 지문 외적으로는 모네의 작품이 주는 특이한 체험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집중하면서 읽어 두는 편이 좋겠다. 미학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신경 생리학
예술 - 서양 미술 - 신경 미학
(가) 「별이 빛나는 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 장치, 제키, 내측 안와 전두엽, 보상계,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노예상」, 체화 경험, 하두정 소엽, 보조 운동 영역
(나) 시각 피질, 색, 움직임, 휘도, V1 영역, 복측 경로, 배측 경로, V4 영역, V5 영역, 「인상, 해돋이」

*** (가) 지문 분석**

 # 문단1 : 화제 제시

1)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감상하다 보면 회오리치는 듯 꿈틀거리는 밤 풍경이 강렬한 색과 결합된 것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격렬한 울림이 전해짐을 느낀다.
⇒ 미적 경험에 대한 설명이다.

2) 우리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접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때 우리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 살아 있는 인간의 뇌 활동을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 장치**로 촬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런 의문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게 되었다.
[맥락 짚기] 미적 경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이번 글의 화제겠다. 정확히는 미적 경험이라는 '정신적 경험'이 체험자의 어떤 '물리적 상태'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겠다.

 # 문단2 : 미적 경험의 물리적 상태

1) 신경 미학의 기틀을 마련한 **제키**는 피험자들에게 「별이 빛나는 밤」을 비롯한 미술 작품들과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 주고 이에 대해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평가하게 하면서, 대뇌의 변화를 fMRI로 촬영했다.
⇒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알다시피 이런 그림이다.



2) 그 결과 아름답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내측 안와 전두엽** 부위가 더 많이 활성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추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그 부위의 활성화 정도가 평소보다 떨어졌다.
⇒ 즉 '미적 경험'의 물리적 상태는 '내측 안와 전두엽 부위의 활성화'에 해당한다.

3) 내측 안와 전두엽은 쾌락적 경험과 관련된 부위로, 활성화되면 즐거움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는 뇌의 **보상계** 중 하나이다. 즉 미적 경험을 할 때에는 뇌의 보상계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 즉 '미적 경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셈이다.

 # 문단3 : 체화 경험의 물리적 상태

1) 한편 미켈란젤로의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노예상」**을 감상하다 보면 조각된 노예상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석조물을 뚫고 탈출하려는 느낌이 강렬하게 전달된다.
⇒ 돌덩어리가 움직일 리가 없는데 왜 움직이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일까?

2) 이는 [노예상이 탈출하려는 듯한 체험에 이입하여] 석조물에서 감상자 자신이 탈출하려는 듯한 **체화 경험**을 하는 데에 기인한다.
⇒ 아주 강렬한 이입이 수반되는 미적 경험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3) 제키의 실험에 따르면 피험자가 체화 경험을 할 때에는 내측 안와 전두엽이 평소보다 더 활성화되면서도, ……
⇒ 미적 경험과 관련된, '보상계'가 평소에 비해 더 강렬하게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

4) …… 동시에 **하두정 소엽**이나 **보조 운동 영역**이 뚜렷하게 활성화되었다. 이 두 부위는 모두 보상계가 아니라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체화와 같은 미적 경험을 할 때에는 운동적 특성이 자극됨을 시사한다.
[주목] …… 이러한 '운동적 특성' 역시 함께 자극된단다. 물론 위 작품을 감상한다고 우리가 실제로 미술관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한 감각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적 특성이 자극된다는 게 중요하겠다.

 # 문단4 : 미적 경험의 본질

1) 제키는 이러한 실험 결과들과 작품 분석을 토대로 모든 미적 경험에는 단일한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적 경험이란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반응이며 대뇌의 특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경 세포의 활성화라는 것이다.
⇒ 제키에 따르면 '미적 경험'은 결국에는 보상계 혹은 하두정 소엽이나 보조 운동 영역의 활성화로 설명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적 경험 역시 '신경 세포의 활성화'라는 물리 상태와 같다는 얘기다.

2) 이는 아름다움이란 대상에 적용된 황금 비율처럼 대상에 내재해 있는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감각을 매개로 하는 인간 내부의 어떤 성질이나 정신 작용의 산물이라고 보는 근대의 미학적 통찰을 계승한 것이다. 다만 제키는 그 성질이나 정신 작용을 뇌의 신경 생리적 활동으로 대체했을 따름이다.
⇒ 제키가 미적 경험을 '물리 상태'로 치환하여 이해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적 경험을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한 건 아니다. 미적 경험은 여전히 체험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 상태'가 맞다. 다만 그것이 특정한 '물리 상태'와 같을 뿐이다.

미적 경험[→ 정신 작용의 산물]
‖
신경 세포의 활성화[→ 뇌의 신경 생리적 활동]

 # 문단5 : 제키의 신경 미학의 의의와 한계

1) 제키의 신경 미학은 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이건 의의에 대한 설명이겠고, ……

2) 다만 아름다움을 느낄 때 내측 안와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이유를 규명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그 연구는 출발선에 놓여 있다. 또한 인간의 복합적인 예술 활동을 뇌의 작용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 …… 이건 한계에 대한 설명이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나) 지문 분석

 # 문단1 : 화제 제시

1) 제키는 시각 피질의 기능이나 시각 정보 처리 방식에서 창작이나 감상의 근거를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대뇌의 **시각 피질**은 시각 정보를 **색**이나 **움직임**, 그리고 밝기의 정도인 **휘도**와 같은 속성으로 분해하여 인지하는데, 예술가들은 시각적 속성들 중 일부를 더 강조하거나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상이한 속성들의 조합을 시도하여 작품을 창작해 왔다. 또한 감상자들은 대뇌의 시각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시각적 정보들을 조합하거나 재구성할 때에 그 예술성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

⇒ 대뇌의 시각 피질은 어떤 이미지 그 자체로 인지하는 대신 '색', '움직임', '휘도' 따위와 같은 시각적 정보들로 분해하여 인지한단다. 그리고 예술가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창작을 해 왔단다.

2) 하나의 시각 정보가 그 자체로 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조합될 때 미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어떤 작품이 매우 강렬하게 보인다면 그 이유는 윤곽 정보와 색채 정보가 각기 다른 시각 피질에서 인식된 후 조합된 결과일 수 있다.

[주목]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가)에서 설명한 '미적 경험' 역시 하나의 시각적 속성이 아닌, 시각적 속성들이 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시각적 속성들이 각기 다른 부위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겠다.

 # 문단2 : 시각 피질의 기능

1) 안구로 유입된 시각 정보는 대뇌의 가장 뒤쪽에 위치한 후두엽의 한 부위인 시각 피질로 전해진다. 시각 피질은 각기 다른 시각적 속성들을 분별하는 여러 부위로 구분되는데, ……

[맥락 짚기] 시각적 속성들이 각기 부위에서 지각된다는 사실은 이미 이전 문단에서 파악했어야 하는 내용이다.

2) …… **V1 영역**이라 불리는 일차 시각 피질은 시각 정보가 처음 도달하는 부위이다. 일차 시각 피질은 주로 밝고 어두움의 경계인 윤곽과 그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물체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을 개괄적으로 지각한다.

⇒ 그렇단다. '윤곽과 그 변화'를 인식한다. '윤곽과 그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위치', '방향',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맥락 짚기] 이때 윤곽이 밝고 어두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한 만큼 이는 문단1-1)의 '휘도'와도 관련이 있겠다.

3) 일차 시각 피질에서 처리된 시각 정보는 **복측 경로**와 **배측 경로**로 분리되어 전달된 뒤 보다 구체적인 정보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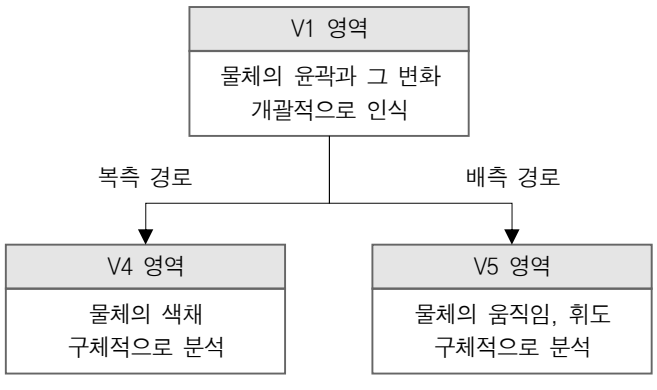
⇒ V1 영역에서 '윤곽'을 비롯하여 개괄적인 정보들이 처리되었다면 각각의 경로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처리된다.

4) 복측 경로의 종착점에 위치한 **V4 영역**에서는 주로 물체의 색채가, ……

⇒ 그렇단다.

5) …… 배측 경로의 종착점에 위치한 **V5 영역**에서는 주로 물체의 움직임과 휘도 등이 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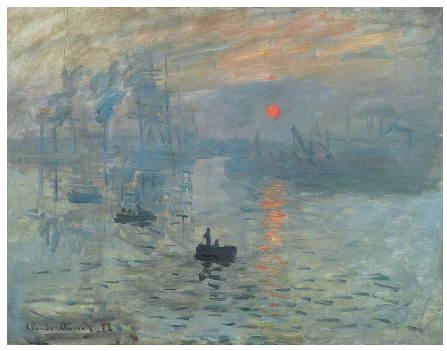
⇒ 그렇단다. 여기서의 '움직임'과 '휘도'는 V1 영역에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겠다.



 # 문단3 : 시각 피질의 작용 및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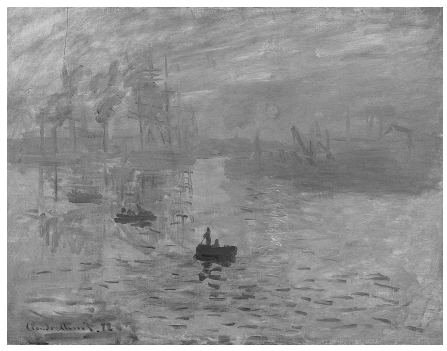
1) 모네의 **「인상, 해돋이」**의 태양에서는 뜨거우면서도 차갑고, 밝으면서도 어두운 기묘함이 느껴진다. 그 근거를 제키의 신경 미학과 시각 정보 처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이런 그림이다.



2) 「인상, 해돋이」를 흑백으로 복사하면 마치 그림 속의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태양과 배경 구름 간의 차이가 사라진다. 이는 태양과 배경 구름 간의 색채 차이는 뚜렷하지만 태양의 휘도와 배경 구름의 휘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 색채에는 차이가 있지만, 휘도에는 차이가 없단다. 흑백 이미지로 보면 더욱 뚜렷하게 느껴질 게다.



[주목] 바꿔 말하면 '색채'를 처리하는 부위 입장에서는 태양과 구름이 잘 구분되지만, '휘도'를 처리하는 부위 입장에서는 태양과 구름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3) 감상자 뇌의 복측 경로로는 태양의 붉은색 정보가 전달되지만 배측 경로로는 휘도 차이에 대한 신호 전달이 거의 없어서 두 전달 체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 2)에서 설명한 그대로다. V4에서는 태양의 색채가 구름의 색채 와 구분되어 전달되겠지만 V5에서는 태양과 구름의 휘도가 구분되어 전달되지 않는다.

4) 태양처럼 빛을 발산하는 대상의 휘도는 보통 매우 밝은 것으로 인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일치는 생경함을 주고, ……

⇒ 문단1-1)의 예술가의 창작 방식에 대한 설명을 떠올렸다면 훌륭하다.

5) …… 결국 서로의 색이 침범하는 듯 보인다. 모네의 태양을 이글거리면서 고동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 각각의 사물이 휘도상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색채상으로는 구분되기 때문에 두 시각적 속성들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이한 미적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6] 현대소설

: (가)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수록 지문 평가

다양한 상징적 장치, 현실과 환상이 복합된 서술 기법, 단순하지 않은 구성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작품이다. 시대 현실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읽어야 한다. 지문에서 두 아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적 모순에 부딪혀 왜소해져 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참고로 단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분의 서술자가 큰아들 영수－작은아들 영호－딸 영희로 각각 다르다. 수록 지문은 난쟁이 가족의 작은아들인 영호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 수록 지문 분석

우리 공원(＝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밖에는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공원들 즉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아무도 땀으로 다진 기반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면 부족하나마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데, 상황을 개선하려 했다가 그러한 생계마저 잃을까 두려워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회사 사람들 즉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공원들은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 줄 사람도 없었다.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현실의 모순을 일깨워 줄 사람도 없었고, 어른 세대 역시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거나 변혁을 꿈꿔 본 경험이 없으니 젊은 세대들에게 해 줄 말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그들은[→ 현실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보아 왔던 어른 세대들] 보았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노동자들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용자인 사장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그 집 나무들은 '나무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보았다. 나도 나무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댁(＝상대편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의 나무는 건강합니까?'라고 씌어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 진단, 생리적 피해 진단, 외과 수술, 건강 유지 관리'라고 씌어 있었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역(＝일을 거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사장 집은 나무들조차도 나무 병원 의사들에게 돌봄을 받는다. 두 현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허리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모른다.[→ 웃고 있지만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겠다. 절망적이고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는, 일종의 자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 조역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가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나'[→ 영호]는, 자신 한 사람의 처지가 아닌 '우리 공원들'의 입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공원들이 왜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고, 그 현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앎'이 부족하며, 그런 앎의 부족 때문에 모순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의 불평등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모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중략)

"잘한다!"

어머니가 말했다.

"둘이서 아버지도 제대로 못 모시는구나."[→ 앞서의 "잘한다!"와 함께 어머니의 말이다. 자식들을 향한 핀잔이다.]

"가만있어."[→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 난쟁이]는 빈 술병을 다리 밑으로 던졌다.[→ 아버지는 다리 위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다.]

"얘들[→ 아버지의 두 아들]이 오늘 훌륭한 일[→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을 했어. 사장을 만나 얘기를 했대. 회사가 잘되려면 몇 사람의 목이 필요하다고 말야. 그리고, 사장에게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공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뜻을 엄마가 알까? 응?"

⇒ '훌륭한 일'의 내용이다.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말을 사장에게 했다는 것이겠다.

"아버지, 그게 아녜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요. 얘기가 먼저 새 버려 그냥 쫓겨났을 뿐예요."

⇒ 사장을 만나 항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미리 알려져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누군가의 배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장을 만났으면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냐? 그렇지? 대답해 봐."[→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도 자식들의 의도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자식들을 향해 재차 자신의 말을 확인하고 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내가 대답했다.

"들었지? 엄마 들었어?"[→ 아버지의 말. 자식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앞서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의도가 있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어머니의 말]

어머니가 말했다.

"얘들은 이제 일류 기술자예요. 어느 공장에 가든 돈을 벌 수 있어요."

⇒ 자식들은 노동 조건의 부당함을 항의하려다 해고를 당했다. 단순한 퇴직이나 해고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자식들이 곧 다른 공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천적인 의견을 펴고 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의 말]

"모르는 소리는 왜 모르는 소리예요? 공장도 옮겨 보는 게 좋아요."[→ 어머니의 말]

"그게 안 된다니까. 벌써 공장끼리 연락이 돼 있어. 똑같은 공장들이야. 얘들을 받아 줄 공장이 없어. 얘들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이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말]

⇒ 자식들이 한 일의 의미를 아버지는 알고 있다. 즉 자식들이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의하려 했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을 것이며, 그 소식이 다른 공장에도 퍼져서 자식들이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없을 것임을 아는 것이다.

⇒ 난쟁이의 두 아들은 불합리한 노동 현실에 대해 항의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현실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아버지는 그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면서도, 아들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준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6] 현대소설
: (나)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 수록 지문 평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작 중 한 편으로, 난쟁이 가족의 큰아들 영수의 시점에서 서술되어 있는 작품이다. 살던 집이 철거되고 아버지인 난쟁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은강으로 이사를 하고, 삼 남매는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작품 속에는 1970년대의 오염된 환경과, 비합리적이고 열악한 노동 조건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잘 그려져 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 계층의 삶 속에서 영수는 평등과 사랑이 있는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 노동자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당대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지문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편해질 듯하다.

＊ 수록 지문 분석

우리 삼 남매는 공장에 나가 죽어라 일했으나 방세 내고, 먹고…… 남는 것은 없었다. 우리가 땀을 흘려 벌어 온 돈은 다시 생존비로 다 나가 버렸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은강 노동자들이 똑같은 생활을 했다.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좋지 못한 옷을 입고,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염된 환경, 더러운 동네, 더러운 집에서 살았다. 동네의 아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골목에서 놀았다. 버려진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여력이 없는 환경이다.] 나[→ 난쟁이의 큰아들 영수]는 공장 주변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타낼 질병의 증세를 생각했다. 은강 공업 지역이 저기압권에 들면 여러 공장에서 뿜어내는 유독 가스가 지상으로 깔리며 대기를 오염시켰다.

⇒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밖에 받지 못했고, 그 임금으로는 생존을 영위하기에만도 급급한 수준이었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주거 환경도 열악했을 것이다. 여기에 공업 지역에서 배출하는 유독 물질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어머니는 은강에 온 후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호흡 장애, 기침, 구토 증상도 자주 일으켰다.[→ 어머니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영희는 청력 장애를 일으켰다. 직포(＝기계나 베틀 따위로 피륙을 짜는 일. 직조)와 작업 현장의 소음이 영희를 괴롭혔다.[→ 영희는 공장의 소음 때문에 직업병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나는 그때 보전반[→ 기계 설비 및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기사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밤일을 하는 영희를 보는 순간 나는 죽고 싶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공장에서 야근을 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다는 말이다.] 영희는 졸음을 못 참아 눈을 감았다. 두 눈을 감은 채 직기(＝피륙을 짜는 기계) 사이를 뒷걸음쳐 걷고 있었다. 그 밤 작업장 실내 온도는 섭씨 삼십구 도였다. 은강방직의 기계들은 쉬지 않고 돌았다. 영희의 푸른 작업복은 땀에 젖었다. 영희가 조는 동안 몇 개의 틀이 서 버렸다. 반장이 영희 옆으로 가 팔을 쿡 찔렀다. 영희는 정신을 차리고 죽은 틀을 살렸다. 영희의 작업복 팔 부분에 한 점 빨간 피가 내배었다.[→ 영희가 조는 바람에 방직 기계가 멈췄고, 영희가 속한 조의 반장이 와서 잠을 깨우려고 영희를 뾰족한 무엇인가로 찔렀던 모양이다. 아마도 옷핀이나 바늘 같은 것이겠다.] 새벽 세 시였다. 새벽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가 제일 괴롭다고 영희는 말했었다. 영희는 눈물이 핑 돈 눈을 돌렸다.[→ 찔린 상처가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힘들고 서럽기도 했을 것이다.] 그 시선 끝에서 큰오빠가 기사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영희가 조는 모습과 반장이 영희를 찌르는 모습을 다 보면서도 오빠는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큰오빠를 보면서 영희의 마음도 괴로웠을 것이고,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기사가 손본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공구를 챙겼다. 나의 작업복은 땀과 기름에 절었다.

⇒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던 1970년대에는, 노동 현장에서 작업 시간이나 작업 환경 보장 같은 노동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는 은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머릿속부터 변혁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 나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기쁨, 평화, 공평, 행복에 대한 욕망들을 갖기를 바랐다.[→ 노동 계층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니, 기쁨이나 평화 등의 인간다운 가치에 대한 욕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영수는 노동 계층이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위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열악한 삶의 조건에 내몰리면서도, 노동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곤 했다. 그런 위협에 넘어가 순순히 사용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영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영희는 많은 시간을 나를 관찰하는 데 보냈다.[→ 아마도 오빠가 뭔가 복잡한 생각이 많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수도 있겠다.] 나는 날마다 사무실 게시판 앞에 가 섰다. 퇴직, 해고, 출근 정지 처분자의 명단이 거기 나붙었다. 나는 게시판 앞에 아버지보다 작은 몸이 되어 서 있고는 했다.

⇒ 영수는 노동 계층이 노동 현실과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각성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괴롭힘을 받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난쟁이였던 '아버지보다 작은 몸'이라는 표현에서 '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 작품 전체 줄거리

◎ 「뫼비우스의 띠」

수학 담당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마지막 시간에 뫼비우스의 띠와 굴뚝 청소를 한 아이들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그와 함께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헐값에 입주권을 사 가는 사나이, 부당함에 분노하여 사나이를 죽이는 꼽추와 앉은뱅이 이야기가 나온다.

◎ 「칼날」

부정과 부패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이웃과 대조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난쟁이와 신애가 등장한다. 주부인 신애는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 힘들어한다. 남편은 매일 사회의 어두운 소식이 가득한 신문을 보며 근심이 많고 밤엔 잠을 잘 못 이룬다. 앞집 남편은 제과점 선전부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 광고부 예산이 일 년에 몇 억씩이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광고 담당자들이 광고를 달라고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때부터 앞집은 전깃불도 유난히 밝아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날아오고는 했다. 뒷집 남편은 세무서 조사과 직원이다. 그 집은 언제나 풍성했지만,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때면 TV 소리가 작아지고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등을 지하실 구석에 쓸어 넣고 새삼스럽게 묵은 옷을 꺼내 입고 다녔다. 한편 난쟁이는 물이 잘 안 나오는 집에 수도꼭지를 새로 달아 주는 일을 한다. 그는 우물을 파는 가게의 남자와 마찰이 있다. 신애는 난쟁이를 믿고 수도꼭지 다는 일을 맡긴다. 난쟁이와 대화를 나누며 난쟁이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이웃해 살고 싶다고 말한다. 작업을 마친 후 갑자기 나타난 우물 파는 남자는 난쟁이를 두들겨 팬다. 신애는 부엌에서 칼을 꺼내 와 위협하여 사나이를 쫓아 버린다. 난쟁이가 단 수도에서는 정말로 물이 나왔다.

◎ 「우주여행」

윤호의 아버지는 법률가다. 아들의 입시 준비를 위해, 윤호를 진학시키려는 A 대학 법학과에서 쫓겨난 지섭을 데려왔다. 하지만 지섭은 윤호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환경과는 다른, 가난하고 힘없고 어두운 세계를 아는 청년이다. 어느 날 지섭은 윤호를 난쟁이 가족이 사는 마을에 데려가고, 달나라와 이상적 세계 이야기를 해 준다. 윤호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음 날 지섭은 윤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쫓겨난다. 윤호는 그해 입시에 떨어진다. 다음 해 다시 시험 준비를 하다가 동아리에서 은희와 인규를 알게 된다. 윤호와 은희는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다. 인규는 은희를 좋아하나 은희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인규는 윤호에게 시험날 답지를 보여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은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윤호는 답지에 인규의 이름과 수험 번호를 써 둘 다 불합격한다. 그 후 달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살하려 하나 은희가 나타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3개의 작은 구성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서술자가 다르다.]

1

난쟁이 가족들은 철거 계고장을 받는다. 시에서 주는 이주 보조금이 있지만 임대 아파트나 분양 아파트로 옮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난쟁이 식구들이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한 지난날, 이웃집 명희는 난쟁이네 큰아들 영수에게 공장 노동자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마음을 준다. 하지만 영수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명희는 그 후 영수를 만나 주지 않았다. 명희는 여러 직업을 거치다 음독자살 예방센터에서 숨을 거둔다. 몸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된 난쟁이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힘들어하다 지섭을 만나 영향을 받는다. 어느 날 가족들은 난쟁이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에 올라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모습을 발견한다.

2

영희가 사라졌다. 난쟁이의 두 아들은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한다. 큰아들 영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키워 나간다. 영수와 작은아들 영호는 노동자들과 함께 사장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지만, 다른 이들의 변심으로 일이 탄로 나 공장에서 쫓겨난다. 아버지는 지섭의 영향으로 달나라를 꿈꾼다. 철거 보상으로 나온 아파트 입주권은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가 사 간다. 난쟁이네 집이 철거당하는 날, 지섭이 쇠고기를 사 들고 와서 난쟁이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다. 가족들이 집을 나온 직후 집은 헐려 버리고, 사람들의 터전을 빼앗는 것에 분노하며 맞서던 지섭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간다.

3

난쟁이네 딸 영희는 자기 집을 사 간 승용차의 사나이를 아무도 모르게 따라갔다. 그는 부유했다. 영희는 괴로운 마음으로 그와 함께 지내다, 그의 금고에서 자기 집의 매매 계약서와 돈을 가지고 빠져나온다. 그 돈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헐렸고 식구들은 이미 이사를 간 후다. 영희는 신애 아주머니를 통해 식구들의 행방과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 올라가 공을 쏘아 올리고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듣게 된다.

◎ 「육교 위에서」

신애의 동생과 그 친구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함께 노력했지만 결국엔 좌절하게 되고, "모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처럼 사회에 흡수당한다. 동생의 친구는 그들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과 하나 되어 이제는 낙원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동생은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입원을 해 있다.

◎ 「궤도 회전」

윤호 아버지는 아들이 A 대학 사회 계열로 진학하길 바랐다. 하지만 윤호는 그 뜻을 거스르고 B 대학 역사학과를 지망한다. 윤호의 집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윤호는 경애를 만난다. 경애의 할아버지는 은강 그룹의 회장이었는데 노환으로 죽는다. 경애는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날 경애를 따라간 지하 성당에서는 십대 노동자를 주제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윤호는 그들의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와 유희적인 모습에 분노한다.

◎ 「기계 도시」

윤호는 쾌적한 환경에서 수험 공부를 하면서도 난쟁이의 아들딸이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은강시를 계속 생각한다. 은강시에서 노동자와 주민들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은강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다. 난쟁이의 큰아들 영수는 은강에서 새로운 노조를 꿈꾸며 그의 이상 때문에 괴로워한다. 영수는 은강 그룹의 경영주를 죽이고 싶어 한다. 윤호는 그를 돕기 위해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영희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난쟁이 마을 릴리푸트를 동경한다. 은강으로 이사 온 후 식구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공장은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다. 영수는 노동조합 지부장을 찾아가 월급이 적게 나온 것에 항의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후 일터에서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스스로 공장을 나온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삼 남매는 죽어라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영수는 그것을 생존비라고 불렀다. 영수도 릴리푸트 같은 곳을 생각한다.

◎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영수는 아버지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백여 년 전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행되던 노동 착취만큼은 아니라도, 은강의 노동자들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조합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삼십여 명의 공원들이 해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해고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일도 없고,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았으며, 책임자들이 무섭게 다그쳐도 노동자들은 저항 없이 일만 계속했다. 영희와 함께 일하던 영이라는 친구는 영수의 영향을 받아 노동 조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노동조합의 새 지부장이 되었다. 어느 날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회의를 열게 되고, 영이는 노동자의 대표로 사용자에게 항의를 한다.

◎ 「클라인 씨의 병」

공해가 심한 은강에는 시각 장애인이 많다. 애꾸눈 노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영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용자 측에서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영이와 조합원들 역시 노동 운동 때문에 불려가는 등 고초를 겪는다. 영수는 교회 목사와 과학자의 영향을 받았고, 여러 공장을 전전한 끝에 노동 운동가가 되어 나타난 지섭에게도 영향을 받는다. 어느 날 과학자가 보여 준 클라인 씨의 병을 보고 영수는 뭔가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고 불안해한다.

◎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은강 그룹 회장이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은강 그룹은 경훈의 아버지가 이끌게 되었다. 어느 날 은강에서 온 노동자에 의해 숙부가 피살되었다. 숙모는 남편의 몫을 자기 앞으로 받기 위해 찾아왔지만 약점을 들키고 돌아간다. 경훈은 아버지의 인정을 얻고 싶었고, 자기보다 뛰어난 형들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경훈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숙부를 살해한 것은 난쟁이의 큰아들 영수로, 영수는 숙부를 아버지로 착각하고 죽였다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지섭은 영수를 위해 증언을 한다. 영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을 지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보고 집에 돌아온 경훈은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약을 쓰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경훈은 그물에 걸린 가시고기가 뛰어올라 살갗을 찢는 꿈을 꾼다.

◎「에필로그」

수학 담당 교사가 다시 등장한다. 그는 대입 예비고사의 좋지 않은 결과를 책임지기 위해 다음 학기는 윤리를 맡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교사는 작은 혹성으로 우주여행을 떠나겠다고 말한다. 한 학생이, 우주인이나 비행접시를 목격하는 현상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순간에 나타나는 자기 방어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다.

꼽추와 앉은뱅이의 뒷이야기가 나온다. 둘은 사장을 따라다니며 함께 차력사로 일했지만 어느 밤 사장이 둘을 남기고 도망을 친다. 두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얻어 타고 사장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태워 주지 않는다. 꼽추는, 사형을 당한 영수가 있었던 형무소를 앉은뱅이에게 보여 준다. 꼽추가 반딧불을 따라가다가 두 사람 모두 차 사고를 당한다.

 # 이해와 감상

1970년대의 산업화된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경제의 생산과 소비 및 분배 구조에서 철저하게 억압받은 소외 계층의 비참한 삶과 절망을 그리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모두 열두 편의 단편 소설들이 결합되어 연작을 이루고 있는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그 단편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연작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난쟁이 일가의 비극적 삶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난쟁이로 상징되는 못 가진 자와 거인으로 상징되는 가진 자 사이의 대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립 속에서 난쟁이 일가의 불행과 비극은 경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면에 걸쳐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대립적 세계관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혁파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핵심 정리

1) 갈래 : 세태 소설, 연작 소설
2) 성격 : 고발적, 비판적
3) 특징
   - 영수, 영호, 영희 등으로 서술자를 변화시켜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4) 주제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절망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7~31] 인문 : 헤어의 보편적 규정주의

*** 지문 평가**

관점을 소개하는 지문이니 키워드를 주목하면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윤리학

분석 철학자, 헤어, 기술적 진술, 자연주의, 도덕적 진술, 규정적 의미, 규범성, 보편성, 보편적 규정주의

*** 지문 분석**

 # 문단1 : 화제 제시

1) 분석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명료화를 주된 과제로 삼는다.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의미 구조를 분석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분석 철학'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2) 윤리학자 헤어 역시 윤리학은 도덕 언어에 대한 탐구여야 한다고 여기고 도덕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덕적 진술의 의미와 도덕규범의 보편성에 대해 규명하려 하였다.
   ⇒ 헤어는 분석 철학의 방법으로 윤리학의 문제에 접근했다는 뜻이겠다.

 # 문단2 : 자연주의

1) '사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다.'와 같이 어떤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기술(記述)적 진술**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사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 상황이 실현될 때[→ '사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 진술이 참이 되는 조건 자체[→ '사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 주는 조건이란? 맞다. '사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 실현되는 거다.]를 의미한다.
   ⇒ '기술적 진술'은 '기술적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겠다. 중요한 개념인 건 분명하다. 헌데……, 문장 참 어렵다. 일단 위의 설명을 최대한 따라가 보자.

2) 자연적 사실에서 도덕적 옳음의 근거를 찾는 **자연주의**는 ……
   [맥락 짚기] 새로운 관점의 등장이다. 보아하니 '기술적 진술'과 관련 있는 관점일 게다.
   ⇒ '그 행위는 옳다. 왜? 자연적 사실에 부합하니까. 그 행위는 옳지 않다. 왜? 자연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주장이겠다.

3) …… '남을 돕는 행위는 선하다.'와 같은 **도덕적 진술** 역시 기술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 '사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다.'와 같은 '기술적 진술'은 '기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자연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따지면 된다. 그런 판단을 말릴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식의 판단을 '도덕적 진술'까지 확장한다.

4)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의 상태를 기술하는 방식[→ '기술적 진술'의 형식]으로 도덕적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남을 돕는 행위는 선하다.'와 같은 도덕적 진술도 '사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다.'처럼 자연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로 따질 수 있는 문장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겠다. 어떻게?

5) 자연주의에 따르면 이 진술[→ '남을 돕는 행위는 선하다.'라는 도덕적 진술]은 '나는 네가 남을 돕는 행위를 하길 바라는 심리를 갖고 있다.'[→ 기술적 진술]는 표현과 동일하다.
   ⇒ 그럴싸하다. '남을 돕는 행위는 선하다.'라는 도덕적 진술이 자연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는 어떻게 따져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나는 네가 남을 돕는 행위를 하길 바라는 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진술은 자연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따질 수 있다.

6) 누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덕적 진술 역시 [기술적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진술이 참이 되는 조건이 곧 의미[→ 기술적 의미]가 된다.
   ⇒ '남을 돕는 행위는 선하다.'라는 도덕적 진술을 '나는 네가 남을 돕는 행위를 하길 바라는 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진술로 환원시켜 놓고 보면, 참과 거짓을 경험적으로 따질 수 있게 된다.
   [주목] 여기까지 '자연주의자'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 • 도덕적 진술은 기술적 진술과 다르지 않다.
> • 도덕적 진술은 진술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기술적 진술로 환원된다.
> • 기술적 진술에 대한 판단이 자연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듯이, 도덕적 진술에 대한 판단도 진술자의 심리적 상태라는 자연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 기술적 진술에 대한 판단이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도덕적 진술에 대한 판단도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7) 헤어는 도덕적 진술이 기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맥락 짚기] 이 지문의 주인공의 입장이다.
   ⇒ 헤어는 도덕적 진술이 기술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단다.

8) 다만 자연주의자처럼 도덕적 진술의 의미를 오로지 기술적 의미로만 환원하면 도덕규범이 나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문단1-2)에서도 언급한 '보편성'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본단다.

9) 사람마다 '선하다'는 말의 의미나 선한 행위를 하길 바라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서로 상반된 진술들에 대한 각기 다른 판단들을 모두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상대주의에 빠진다는 것이다.
   ⇒ 도덕적 진술을 진술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기술적 진술로만 이해하게 되면, 진술자의 심리 상태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진술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목] 여기까지 '자연주의에 대한 헤어의 비판'을 정리해 보자.

> • 도덕적 진술을 진술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기술적 진술로 환원하면, 진술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도덕적 진술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 따라서 도덕적 진술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은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도덕적 진술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 문단3 : 규정적 의미와 도덕적 진술의 규범성

1) 헤어는 **도덕적 진술**이 지니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규정적 의미에 있다고 본다.
   ⇒ 그러니까 도덕적 진술은 '기술적 의미'도 지니지만 '규정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규정적 의미'라는 거다.

2) **규정적 의미**란 사실의 진위가 아니라[→ 사실의 진위에 관한 것은 '기술적 의미'였다.] 사실에 대한 평가나 태도에 관한 것으로, 헤어에 따르면 도덕적 진술은 명령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명령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 그렇단다. 일단 더 읽자.

3) 즉 '남을 돕는 행위는 선하다.'라는 진술[→ 도덕적 진술]은 '남을 도와라!'로[→ 명령문의 형식으로] 쉽게 전환된다. 이렇게 도덕적 진술이 명령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도덕적 진술에 대해 판단할 때 그와 관련된 명령에 대한 인식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도덕적 진술을 일종의 명령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은 도덕적 진술 속에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고, 도덕적 진술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대한 판단에서 바로 그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도덕적 진술은 명령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어렵다면 다음 예시를 참조하자.

4) 예컨대 '동물 학대는 나쁘다.'라는 도덕적 진술을 처음 접했을 때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듣고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듣고도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나 이성적인 숙고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면 그 진술[→ 도덕적 진술] 속에 '동물 학대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다.

⇒ 예시지만 중요한 문장이다. 도덕적 진술 속에 담긴 명령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도덕적 진술에 명령문이 담겨 있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나 인식한다.

5) 그런 점에서 도덕적 진술이 규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은 도덕적 진술이 **규범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 따라서 도덕적 진술에는 규정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 규정적 의미로 인해 도덕적 진술은 규범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그 규범성을 실제로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문단4 : 규정적 의미와 도덕적 진술의 보편성

1) 헤어에 따르면 도덕적 진술은 규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보편성도 띤다.

⇒ 문단3-5)에서 했던 말의 형식을 빌려 다시 표현하면 이렇다. 도덕적 진술에는 규정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 규정적 의미로 인해 도덕적 진술은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맥락 짚기] 이번엔 문단3의 전개 방식과 달리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 보편성을 지니게 되는 근거를 계속 확인해야겠다.

2)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마다 달리 생각할지라도 이 도덕적 진술 속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좌회전하시오!'라는 푯말을 마주했을 때 그 실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좌회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듯이, 도덕적 진술에 담긴 명령도 그 실천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규범으로 인정하게 된다.

⇒ 조심해야 할 것은 헤어가 말하는 '도덕적 진술의 보편성'이 인간이면 누구나 그 도덕적 진술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도덕적 진술 속에 담긴 규정적 의미, 즉 명령의 존재를 누구나 인식한다는 점에서의 보편성인 게다.

3) 이렇게 헤어의 견해는 도덕적 진술에 규범성과 보편성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보편적 규정주의**라 불린다.

[주목] 지금까지 '헤어'의 견해를 정리하면 이렇다.

- 도덕적 진술에는 기술적 의미도 있지만 규정적 의미도 있다.
- 도덕적 진술 속에 담긴 규정적 의미란 곧 명령의 의미를 말한다.
- 인간은 도덕적 진술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도덕적 진술 속에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정적 의미의 존재로 인해 도덕적 진술은 규범성과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